



카푸부 마을

가빈과 질 포더길 (Gavin and Jill Fothergill). 2014 년 7 월 2 일. 출처: 인게이지 매거진 ([Engage Magazine](http://EngageMagazine))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여정과 늘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시기에 여러 곳의 많은 사람에게 비전의 조각들이 주어진다. 퍼즐 조각처럼 그것들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것들을 파악해가며 우리는 압도될 수도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 간 것처럼,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여정과 방법을 보이시기 전에 비전이나 약속의 끝을 보여 주신다.

비전이오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 길을 따르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것은 콩고 공화국의 카푸부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학교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3 년 이상 전에, 루뎀바시 출신 아이메 무툼보 목사는 카푸부 마을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다 (위의 사진). 지역 사회와 그 곳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하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먼 거리 외에도 학교에 다니기 위한 높은 비용 또한 충격적이었다. 그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남 만을 학교에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기초적인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남 카탕가 연회 감독인 셀레스틴 치시반지와 함께 그는 카푸부에 사는 가족들에게 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받기 시작했다. 그 비전의 일부로 그 두 사람은 교회 근처에 학교를 지을 땅을 사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

올해 2 월, 나의 여동생과 매제(앤디)가 우리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콩고 공화국의 루뎀바시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즐겼다. 음악, 춤, 신기한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많은 콩고사람들과의 교제도 아주 즐거워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 중 하나는 카푸부 였다. 방문 전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마을에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깊이 감동받았지만, 아이메 목사에게 거의 3 년 전에 주어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앤디에게 그가 학교를 세우는 일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지만 앤디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다. 미국 미시시피의 오션 스프링즈에 돌아온 후 첫 주일, 앤디가 예배 팀을 인도하는 크로스로드 나사렛 교회에서 연주 팀의 한 멤버가 앤디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 팀이 해변에서 콘서트를 하라는 비전을 주셨다고 하며 그 콘서트는 앤디가 받은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행사가 계획 되었고 카푸부에 학교를 짓기 위해 8 천 달러모금을 목표로 여러 주에서 많은 밴드들이 참여해 해변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들은 기부자를 찾고, 장소를 예약하고, 행사 승인을 받고, 열심히 광고했다. 4 개월 후, 콩고 잼이 개최되었다 (www.congojam.org).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교회가 카푸부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11,000 달러 이상을 모금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보상을 느끼는 경험이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길이 멀고 어려워 보인다 해도 그분은 모든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전이 너무 커 보인다 해도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 가빈과 질 포더길은 콩고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이다. 포더길의 사역 블로그에서 승인 받고 재 인쇄함.

